

고령자의 ‘성별 삶의 질’ 현황과 정책 과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방향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과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볼 수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의 인구정책은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중심이 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조는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도 유지되어 수립되었으나, 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계속적 감소는 인구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18년 ‘저출산·고령화 로드맵’을 통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를 계기로 제4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②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③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에서 직접적 출산 장려 정책을 지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과 적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4차 기본계획에서의 목표로 ‘성평등’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는 부각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출산아 수 감소로 인한 고령화율의 급격한 증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자¹⁾

의 증가로 대표되는 고령사회에 대해 소득보장을 비롯하여 건강, 요양, 사회참여 등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아업 등의 도입과 발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취약한 고령자가 상당부분 존재함을 보여 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오래 생존하는 여성의 경우 후기고령자의 규모가 크고 신체 및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 현황을 남성과 여성의 성별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파악하고 향후 고령자 대응 정책에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 고령화의 성별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별로 고령자의 성별 경제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며 생활하기 위한 정보화 능력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요구되는 여성과 남성 고령자의 고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인구 고령화의 변화와 성별 특성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현재 총인구 51,836천 명에서 2030년 51,199천 명으로 감소하고, 2045년에는

5천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규모 감소에는 출산아 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20년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출산아 수 감소가 총 인구 감소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반면, 총인구 감소로 인하여 고령화율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속화하여, 2020년 15.7%이며, 2025년에는 20.6%에 도달하며, 향후 2050에는 40.1%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21).

인구 고령화 현상에 있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화율 증가와 함께 정책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지표는 고령자의 연령대별 규모와 비율이다. 특히 80세 이후 후기 고령자의 경우 신체 및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인구집단이다. 2020년 기준 80세 이상 인구 규모는 1,891천 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3.6%를 차지하며,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55~'63년 출생자)가 80세 이상에 도달하는 2035년에는 80세 이상 인구는 3,994천 명으로 2020년 보다 약 2배 증가하고, 인구 대비 비율 또한 7.9%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50년 7,804천 명으로 증가하고 비율은 16.5%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통계청, 2021).

연령별 고령자의 성비 구성을 살펴보면, 2020년 65세 이상의 성비는 남자가 43.2%, 여자가 56.8%이며, 80세 이상은 여자의 비율이 66.9%로 크게 남성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6년을 더

1) 본 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용어를 '고령자' 명칭을 사용함. 이는 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정책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노인'의 용어를 지향하고 '고령자'를 사용함.

〈표 1〉 총인구 및 고령인구 변화 추계(2020~2050)

(단위: 천명, %)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인구		51,836	51,447	51,199	50,868	50,193	49,029	47,358
고령화율 (65세+)		15.7	20.6	25.5	30.1	34.4	37.4	40.1
인구수	65세+	8,152	10,585	13,056	15,289	17,245	18,335	19,004
	75세+	3,499	4,367	5,497	7,301	9,093	10,571	11,676
	80세+	1,891	2,538	3,144	3,994	5,439	6,792	7,804
	85세+	782	1,185	1,576	1,946	2,528	3,551	4,408
구성비	65세+	15.7	20.6	25.5	30.1	34.4	37.4	40.1
	75세+	6.8	8.5	10.7	14.4	18.1	21.6	24.7
	80세+	3.6	4.9	6.1	7.9	10.8	13.9	16.5
	85세+	1.5	2.3	3.1	3.8	5	7.2	9.3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2&conn_path=I3에서 2022.8.22. 인출

주: 1) 2021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자료임

2) 중위추계 결과로서,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 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남녀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2030년에는 5.3세, 2040년에는 4.6세, 2050년에는 4.1세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기대수명이 88.9세로 2020년 기준 5.4세 증가하고, 특히 남자는 6.3세 증가, 여자는 4.4세 증가할 것이다.

기대수명은 증가하지만 남녀차이는 감소함에 따라 고령자의 성비 불균형은 향후 계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남자의 비중은 2020년 43.2%에서 2050년 46.3%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 남자의 비중은 2020년 33.1%에서 41.8%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남녀 성비의 차이가 크게 개선되면서 후기

〈표 2〉 고령자 연령별 성비 구성 및 성별 기대수명

(단위: %, 세)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성비구성	65세이상	남자	43.2	44.3	45.2	45.6	46.0	46.1	46.3
		여자	56.8	55.7	54.8	54.4	54.0	53.9	53.7
	80세이상	남자	33.1	35.2	37.4	39.1	40.6	41.4	41.8
		여자	66.9	64.8	62.6	60.9	59.4	58.6	58.2
성별 기대수명	전체		83.5	84.7	85.7	86.6	87.4	88.2	88.9
	남자(A)		80.5	81.9	83.0	84.1	85.1	86.0	86.8
	여자(B)		86.5	87.6	88.4	89.1	89.8	90.4	90.9
	성별 차이(B-A)		6.0	5.7	5.3	5.0	4.6	4.4	4.1

출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1&conn_path=I3, 2022.9.13. 발췌

고령자의 특성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후기 고령자 중 여자 비중이 높고 이는 신체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자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고령자의 성별 삶의 질 현황²⁾

고령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정경희 외(2017)의 연구를 기반으로 객관적 지표로서 경제상태, 건강과 돌봄상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관적 지표로서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 및 여가활동, 가족 및 친구이웃관계에 대한 다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로서 고령자의 성별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고령자 성별 경제상태

고령자의 성별 경제상태는 소득원별 구성비와 금액 비교, 그리고 각 소득원별 보유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령자 전체의 연 소득은 1,557만 원이고, 남자는 2,072만 원이며 여자는 1,168만 원으로 여자 고령자는 남자에 비해 약 904만 원이 낮게 나타난다. 소득원별 금액의 경우 전체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이 428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근로소득이 375만 원, 사업소득 267만 원, 사적이전소득 2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원별 평균 금액은 남자는 근로소득이 55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공적이전소득 542만 원, 사업소득 267만 원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공적이전소득이 343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령자의 경우 근로, 사업, 재산소득의 연평균 금액이 높은 반면, 여자는 공적이전 또는 사적이전의 소득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의 경우 근로와 사업소득의 비중이 24.1%와 17.2%이며, 27.5%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나타나며, 남자 고령자

〈표 3〉 고령자 성별 경제상태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 ²⁾	기타소득	계 (명)
〈구성비〉 전체 ¹⁾	24.1	17.2	11.0	13.9	27.5	6.3	0.0	100.0 (10,097)
성								
남자	26.6	20.7	9.7	9.1	26.2	7.9	0.0	100.0 (4,346)
여자	20.9	12.4	12.9	20.3	29.3	4.2	0.0	100.0 (5,751)
〈연 소득〉 전체 ¹⁾	375.8	267.4	171.8	215.8	428.7	97.9	0.2	1,557.6
성								
남자	550.5	429.0	200.0	187.9	542.1	162.7	0.0	2,072.2
여자	243.8	145.3	150.5	236.9	343.0	48.9	0.3	1,168.7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해당 영역의 고령자의 삶의 질 특성 분석은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분석내용 중 성별 분석의 내용을 인용함. 그러나 본 글에서는 노인을 고령자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의 근로와 사업소득은 47.3%인것에 비해 여자 고령자는 33.3%로 14.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로 남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남자 고령자에 비해 여자 고령자는 개인단위 총 소득액이 낮으며, 또한 소득원별 구성에서도 남자는 근로, 사업, 재산소득 및 사적 연금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태에서 남자 고령자에 비해 여자 고령자가 객관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경제적 자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령자 성별 건강 및 돌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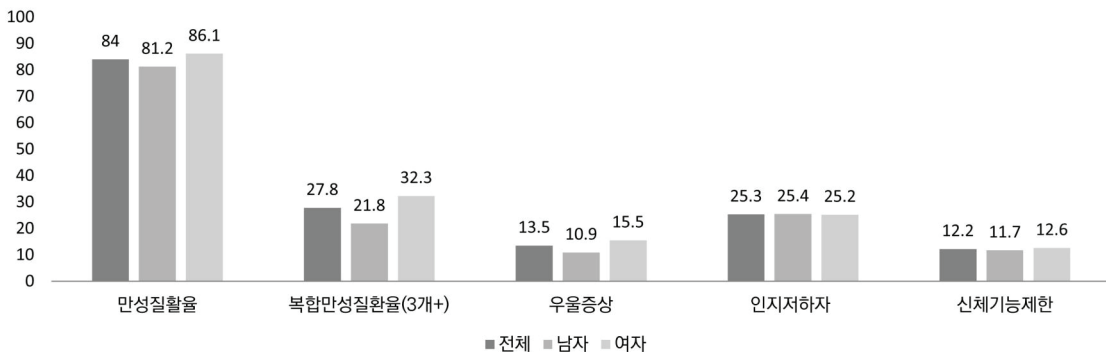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 일상생활수행제한률을 통해 객관적 건강상태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49.3%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다(매우건강+건강)고 평가하고 있으며,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55.3%가 건강하다고 응답하고, 14.9%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여자의 경우 44.8%가 건강하다고 하고 23.6%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령자에 비해 여자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고령자가 남자에 비해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 고령자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4.5	44.8	30.8	17.6	2.3	100.0 (9,930)
성						
남자	6.9	48.4	29.7	13.2	1.7	100.0 (4,281)
여자	2.7	42.1	31.6	20.9	2.7	100.0 (5,649)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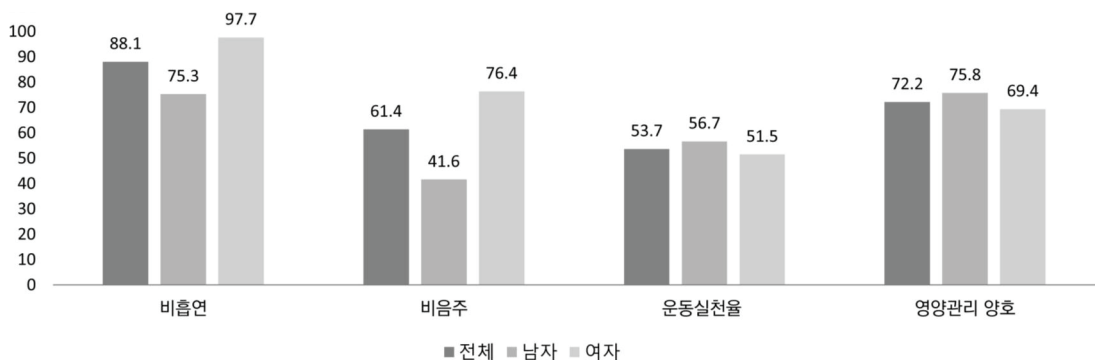
〔그림 11〕 고령자 성별 객관적 건강상태

고령자의 성별 객관적 건강상태를 만성질환, 우울, 인지저하, 신체기능제한 상태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만성질환에서 전체 고령자 중 84.0%는 1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으며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율은 27.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81.2%가 만성질환이 있는 반면 여자는 86.1%로 나타나고, 3개 이상 복합만성질환율에서는 남자가 21.8%인 반면, 여자는 32.3%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증상에서도 전체 고령자의 13.5%가 증상을 보이지만, 남자는 10.9%, 여자는 15.5%로 나타났다. 인지저하자 비율과 신체 기능제한의 비율은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남자에 비해 여자 고령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보면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뿐 아니라 객관적 건강상태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 고령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실천율을 흡연, 음주, 운동, 영양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고령자의 건강실천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비흡연, 비음주의 비율이 97.7%와 76.4%로 남자에

비해서 높은 반면, 적극적 건강실천 행위인 운동실천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남자는 56.7%가 운동을 하는 반면, 여자는 51.5%로 다소 낮게 나타나며, 영양관리에서도 남자는 75.8%가 양호한 반면, 여자는 69.4%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 고령자의 경우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남자에 비해 높아서 혼자 사는 1인가구의 비중이 남자에 비해 높음으로 인해 식사와 영양관리에 소홀해지는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후기 고령자의 경우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자 고령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삶의 질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높다. 돌봄 상태를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중 55.0%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남자는 53.4%, 여자는 56.1%로 여자 고령자가 남자에 비해 약간 높은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제공자는 남자는 동거 가족원으로부터의 돌봄이 86.1%인 반면, 여자는 66.8%로 약 20%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나며, 여자의 경우 친척이나 이웃 등의 비율이 20.9%로 남자의 7.0%에 비해 매우 높으며 또한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률이 22.3%로 남자의 14.1%에 비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 고령자 성별 건강행위 실천율

〈표 5〉 고령자 성별 돌봄 현황

(단위: %, 명)

특성	돌봄 수급률 ¹⁾	돌봄제공자 ²⁾						
		가족원		친척, 이웃 · 친구 · 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명)
		동거	비동거					
전체	55.0	74.5	39.3	15.3	4.2	19.1	10.7	(678)
성								
남자	53.4	86.1	40.2	7.0	3.4	14.1	13.1	(270)
여자	56.1	66.8	38.8	20.9	4.7	22.3	9.2	(407)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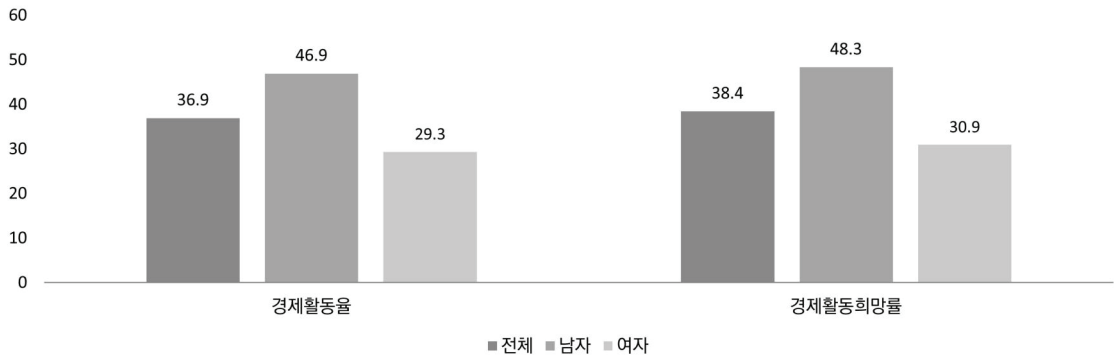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혼인은 여자가 연하인 비율이 높고, 또한 남자의 기대수명이 여자에 비해 짧은 점으로 인해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여자에 비해 동거가족원인 배우자로 부터의 돌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자 고령자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남자에 비해 공식서비스나 친인척 등의 비공식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령자의 돌봄 수급률은 성별 차이가 없으나 도움의 충분성에서는 남자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도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36.3%로 약 1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에서도 남자 고령자의 경우는 도움이 필요없어서의 응답이 58.0%인 반면, 여자는 해당 응답은 35.3%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37.1%,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3.9%, 비용이 부담 돼서가 8.2%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적합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0).

3) 고령자 성별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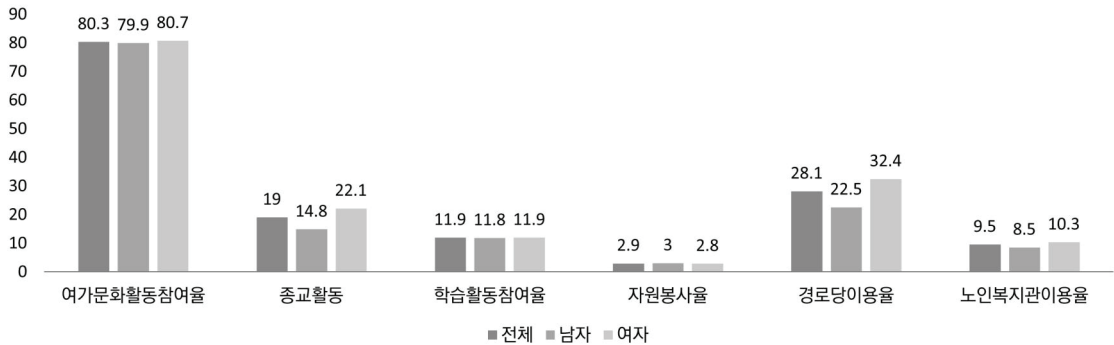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과거에 비해 양호해지고 노후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비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자 중 36.9%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며 남자는 46.9%, 여자는 29.3%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여자 고령자의 경우 과거 전통적 성별 역할분담에 따라 경제활동보다는 가사와 가정내 양육 및 돌봄 역할을 함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남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희망률에서도 남자는 48.3%가 희망하는 반면 여자는 30.9%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고령자의 종사상 지위와 직종의 차이를 보인다.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남자와 여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여자의 경우 특히 종사자의 과반 이상이 단순노무종사자로 나타나며, 서비스 종사,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서는 남자는 자영업이 40.8%, 상용근로자 21.9%, 임시근로자 17.5%인 반면, 여자는 자영업 24.3%, 임시근로자 25.8%, 일용근로자 19.0%,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 고령자 성별 경제활동률 및 경제활동희망률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4] 고령자 성별 사회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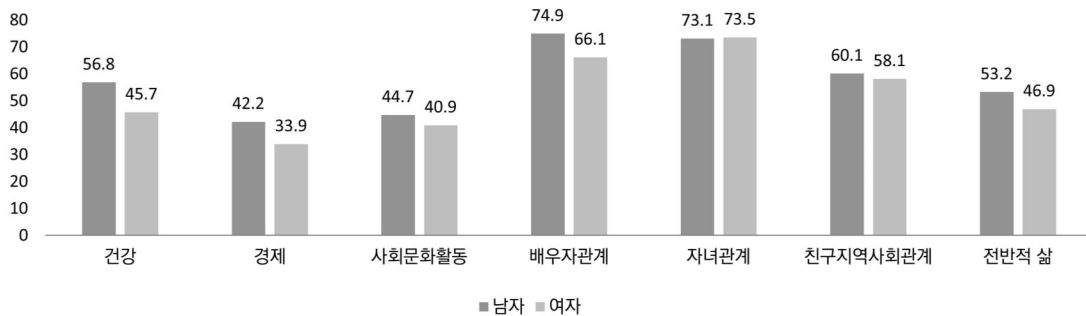
무급가족종사자 14.1%이며, 상용근로자는 14.3%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0).

고령자의 삶의 질 요인 중 다양한 사회활동은 여가문화활동과 학습활동, 자원봉사 참여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은 남녀 모두 80%가량 참여하며, 학습활동은 11.9%, 자원봉사는 3% 이내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종교활동에서 여자 고령자의 경우 22.1%이며, 남자는 14.8%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사회 노인복지기

관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로당의 경우 여자는 32.4%, 남자는 22.5%로 약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4)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개별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볼 수 있다. 우선 전반적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은 남자가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5] 고령자 성별 사회활동 참여율

53.2%이며, 여자는 46.9%로 여자 고령자가 남자에 비해 6.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자 고령자는 남자에 비해 건강, 경제, 사회문화활동을 비롯해 배우자 관계, 친구지역사회관계에서도 만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남자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56.8% 인 것에 반해 여자는 45.7%, 경제상태에서는 남자는 42.2%인 반면, 여자는 33.9%로 건강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이 경제로 나타났다. 관계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자녀와 친구지역사회관계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보화 적응상태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우리사회는 급격히 비대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에게도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자 중 상당수가 급격한 정보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전체 고령자 중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를 보유하는 비율은 56.4%에 그치고 사용하는 비율은 52.8%이다. 특히 여자 고령자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51.7%로 남자에 비해 10.8%포인트 낮으며 사용율도 48.2%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정보 습득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 고령자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공지 내용 이해의 어려움은 남자는 50.1%가 어려움을 경험한 반면 여자는 65.6%로 높게 나타나며,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남자는 56.1%이지만, 여자 고령자는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인터넷 중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앞서 두가지 어려움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령자의 74.1%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남자는 69.1%, 여자는 77.9%로 나타났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령친화적이지 못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많은 고령자의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경험하며 특히 여자 고령자의 경우 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령자 성별 돌봄 현황

(단위: %, 명)

구분	스마트 기기		정보 습득 어려움 경험률			(명)
	보유	사용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	
전체	56.4	52.8	58.9	63.5	74.1	(9,930)
성						
남자	62.5	59.0	50.1	56.1	69.1	(4,281)
여자	51.7	48.2	65.6	69.1	77.9	(5,649)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함의

200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소득, 건강 및 돌봄,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최근 고령자의 삶의 상태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변화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상태의 자립성 증가, 주관 및 객관적 건강상태 호전 등의 결과가 보이며, 최근 노인빈곤율 감소와 자살률 감소 또한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고령자의 성별 삶의 질 영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자 고령자는 남자 고령자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경제상태에서는 남자에 비해 낮은 총 소득과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 경제적 독립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서도 만성질환율을 비롯해 우울증상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에서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율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급격히 변화

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정보화에 대한 적응 수준은 남자에 비해 현격히 낮음을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사회활동 및 여가문화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고령자의 성별 차이는 주관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유사한 성별 차이의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와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자녀 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성별 삶의 질 차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여자 고령자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고령자의 정보이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고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저출산·고령화 로드맵.

대한민국 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3에서 2022.8.22. 인출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